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강민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4:1-13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세 가지 시험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18일	2월 25일
윤하나	김중대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4)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본문 : 눅3:16-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즉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리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한 상황은 정말로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잃어 버린 후 약 600년 가까이 식민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반복되는 전쟁과, 그로인한 정치적 대혼란과, 기근과 민란과 자연재해는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은 일정 양의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로마는 납세국가입니다. 그들의 세법은 인두세를 거뒀습니다. 인두세는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 자를 계산해서 세를 거두는 것인데 다른 민족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던 이스라엘에게 이 세법은 가혹한 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를 자처하면서 같은 동포의 호주머니를 강탈했는데 연24%, 월 2부 이자를 추가로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소득세, 토지세, 곡물세에 세리에게까지 바쳐야 하는 세금으로 인해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다는 말이 절대 쉬운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는 다른 설교를 하는 것을 듣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은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세례요한은 레위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그에게 기대를 가졌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절박했음을 말해 줍니다.

그런 세례요한이 그들에 세례를 베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라고 호칭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라고 호칭합니다. 물세례는 형식적인 세례의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을 드렸다고 해서 세례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세례 교인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따르다는 제자들중에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저는 그 첫 단추인 세례를 너무나 함부러 남발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감히 말합니다.

형식적인 세례교인은 많아진 반면,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린다는 건 매일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생각, 가치관이 달라졌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건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